

아래 강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. 가감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.

<https://youtu.be/KGyK-pNvWos?list=PLRx0vPvIEmdAghTr5mXQxGpHjWqSz0dgC>

## 정렬 알고리즘

정렬(Sorting)이란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.

일반적으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정렬 알고리즘이 공식처럼 사용된다.

아래부터는 오름차순 정렬을 기준으로 설명한다.

## 선택 정렬

처리되지 않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선택해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바꾸는 것을 반복한다.

```
array = [7, 5, 9, 0, 3, 1, 6, 2, 4, 8]

for i in range(len(array)):
    min_index = i #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
    for j in range(i + 1, len(array)):
        if array[min_index] > array[j]:
            min_index = j
    array[i], array[min_index] = array[min_index], array[i] # 스와프

print(array)

''' 출력
[0, 1, 2, 3, 4, 5, 6, 7, 8, 9]
'''
```

##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

선택 정렬은 N번 만큼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맨 앞으로 보내야 한다.

전체 연산 횟수를 구해 빅오 표기법으로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. 구현 방식에 따라 사소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.

$$N + (N - 1) + (N - 2) + \dots + 2 = (N + 2)(N - 1)/2 = (N^2 + N - 2)/2 \rightarrow O(N^2)$$

## 삽입 정렬

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하나씩 골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.

선택 정렬에 비해 구현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,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동작한다.

정해진 만큼 끝까지 비교해야 하는 선택 정렬과 달리 삽입 정렬은 끝까지 비교할 필요 없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```

array = [7, 5, 9, 0, 3, 1, 6, 2, 4, 8]

for i in range(1, len(array)):
    for j in range(i, 0, -1): # 인덱스 i부터 1까지 1씩 감소하며 반복하는 문법
        if array[j] < array[j - 1]: #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
            array[j], array[j - 1] = array[j - 1], array[j]
        else: # 자기보다 작은 데이터를 만나면 그 위치에서 멈춤
            break

print(array)

''' 출력
[0, 1, 2, 3, 4, 5, 6, 7, 8, 9]
'''

```

##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

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선택 정렬과 동일한  $O(N^2)$ 이며,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이 두 번 중첩되어 사용된다.

삽입 정렬은 현재 리스트의 데이터가 거의 정렬되어 있는 상태라면 매우 빠르게 동작한다.

최악의 경우는 내림차순 정렬된 상태(반복문 안에서 자기보다 작은 데이터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을 때)일 것이다.

최선의 경우(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정렬을 수행하는 경우)  $O(N)$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.



출처: 연애혁명 105화  
이건 이경우

## 퀵 정렬

기준 데이터를 설정하고 그 기준보다 큰 데이터와 작은 데이터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다.

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렬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.

병합 정렬과 더불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렬 라이브러리의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이다.

가장 기본적인 퀵 정렬은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 데이터(Pivot)로 설정한다.

주석 처리된 print() 부분을 주석 해제해보면 정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.

```

array = [7, 5, 9, 0, 3, 1, 6, 2, 4, 8]

def quick_sort(array, start, end):
    if start >= end: # 원소가 1개인 경우 종료
        return
    pivot = start # 피벗은 첫 번째 원소
    left = start + 1
    right = end
    while left <= right:
        # 피벗보다 큰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반복
        while left <= end and array[left] <= array[pivot]:
            left += 1
        #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반복
        while right > start and array[right] >= array[pivot]:
            right -= 1
        if (left > right): # 엇갈렸다면 작은 데이터와 피벗을 교체
            array[right], array[pivot] = array[pivot], array[right]
        else: # 엇갈리지 않았다면 작은 데이터와 큰 데이터를 교체
            array[left], array[right] = array[right], array[left]
    # print(array)
    # 분할 이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서 각각 정렬 수행
    quick_sort(array, start, right - 1)
    quick_sort(array, right + 1, end)

quick_sort(array, 0, len(array) - 1)
print(array)

```

파이썬의 장점을 살린 소스코드는 아래와 같다.

첫 번째 원소인 피벗 기준으로 작은 수는 피벗의 왼쪽, 큰 수는 피벗의 오른쪽에 둔다는 큰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, 어마어마하게 직관적이다.

파이썬은 놀라운 언어다.

```

array = [7, 5, 9, 0, 3, 1, 6, 2, 4, 8]

def quick_sort(array):
    # 리스트가 하나 이하의 원소만을 담고 있다면 종료
    if len(array) <= 1:
        return array
    pivot = array[0] # 피벗은 첫 번째 원소
    tail = array[1:] # 피벗을 제외한 리스트

    left_side = [x for x in tail if x <= pivot] # 분할된 왼쪽 부분
    right_side = [x for x in tail if x > pivot] # 분할된 오른쪽 부분

    # 분할 이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서 각각 정렬 수행하고, 전체 리스트 반환
    # print(left_side, [pivot], right_side)
    return quick_sort(left_side) + [pivot] + quick_sort(right_sid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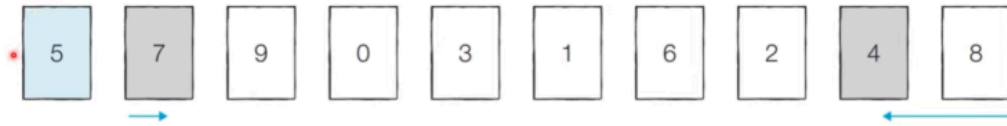
print(quick_sort(array))

```

## 퀵 정렬 동작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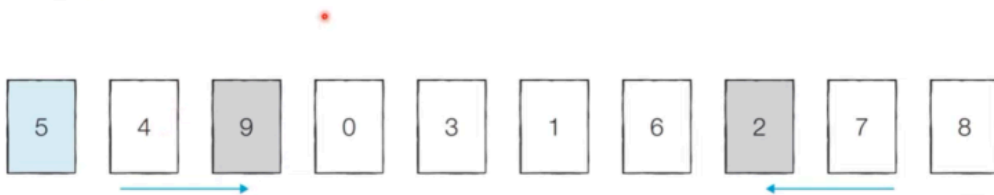
### 퀵 정렬 동작 예시

- **[Step 0]** 현재 피벗의 값은 '5'입니다. 왼쪽에서부터 '5'보다 큰 데이터를 선택하므로 '7'이 선택되고, 오른쪽에서부터 '5'보다 작은 데이터를 선택하므로 '4'가 선택됩니다. 이제 이 두 데이터의 위치를 서로 변경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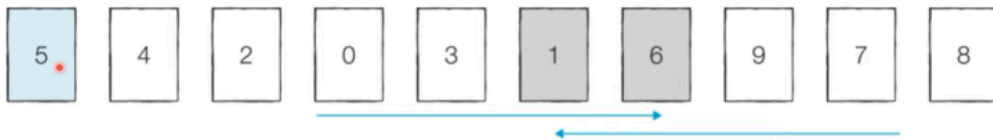
### 퀵 정렬 동작 예시

- **[Step 1]** 현재 피벗의 값은 '5'입니다. 왼쪽에서부터 '5'보다 큰 데이터를 선택하므로 '9'가 선택되고, 오른쪽에서부터 '5'보다 작은 데이터를 선택하므로 '2'가 선택됩니다. 이제 이 두 데이터의 위치를 서로 변경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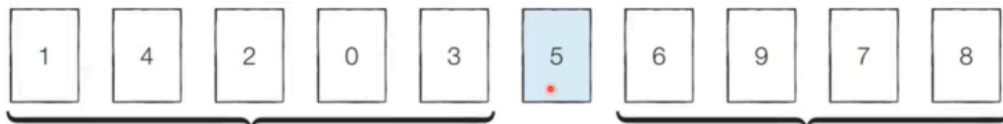
### 퀵 정렬 동작 예시

- **[Step 2]** 현재 피벗의 값은 '5'입니다. 왼쪽에서부터 '5'보다 큰 데이터를 선택하므로 '6'이 선택되고, 오른쪽에서부터 '5'보다 작은 데이터를 선택하므로 '1'이 선택됩니다. 단, 이처럼 **위치가 엇갈리는 경우 '피벗'과 '작은 데이터'의 위치를 서로 변경**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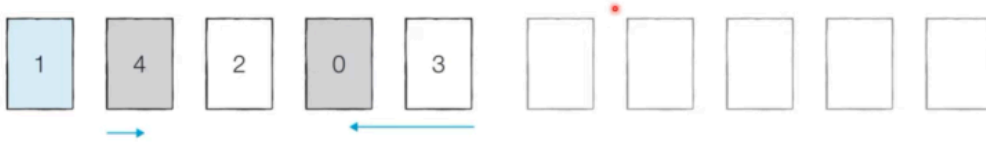
### 퀵 정렬 동작 예시

- **[분할 완료]** 이제 '5'의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5보다 작고,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'5'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렇게 피벗을 기준으로 데이터 묶음을 나누는 작업을 **분할(Divide)**이라고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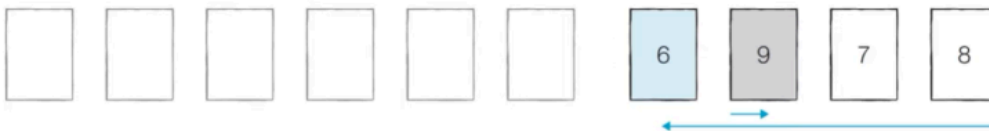
## 퀵 정렬 동작 예시

- [왼쪽 데이터 묶음 정렬]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렬을 수행합니다.



## 퀵 정렬 동작 예시

- [오른쪽 데이터 묶음 정렬]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렬을 수행합니다.
  -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정렬이 수행됩니다.



## 퀵 정렬이 빠른 이유: 직관적인 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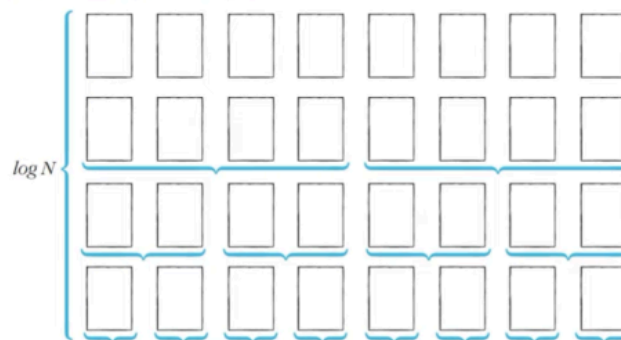
실제로는 데이터의 너비(데이터의 개수)가 8일 때 피벗이 있어 분할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다.

이상적인 경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때마다 정렬 수행 범위가 절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높이를 확인했을 때 밑이 2인  $\log N$ 이라고 할 수 있다.

따라서 전체 연산 횟수로 너비\*높이 =  $N \times \log N = N \log N$ 을 기대할 수 있다.

## 퀵 정렬이 빠른 이유: 직관적인 이해

- 이상적인 경우 분할이 절반씩 일어난다면 전체 연산 횟수로  $O(N \log N)$ 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 - 너비 X 높이 =  $N \times \log N = N \log N$



## 퀵 정렬의 시간 복잡도

퀵 정렬은 평균의 경우  $O(N \log N)$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.

하지만 최악의 경우  $O(N^2)$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.

첫 번째 원소를 피벗으로 삼을 때, 이미 정렬된 배열에 대해서 퀵 정렬을 수행하는 경우가 최악의 예시이다.

삽입 정렬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이 최대(끝까지) 돌아가는 경우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

## 계수 정렬

특정한 조건이 부합할 때만 사용할 수 있지만 **매우 빠르게 동작**하는 정렬 알고리즘이다.

단, 계수 정렬은 데이터의 크기 범위가 제한되어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.

데이터의 개수가 N, 데이터(양수) 중 최댓값이 K일 때 최악의 경우에도 수행시간  $O(N + K)$ 를 보장한다.

```
# 모든 원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
array = [7, 5, 9, 0, 3, 1, 6, 2, 9, 1, 4, 8, 0, 5, 2]
#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리스트 선언 (모든 값은 0으로 초기화)
count = [0] * (max(array) + 1)

for i in range(len(array)):
    count[array[i]] += 1 # 각 데이터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 증가

for i in range(len(count)): # 리스트에 기록된 정렬 정보 확인
    for j in range(count[i]):
        print(i, end=' ') # 띄어쓰기를 구분으로 등장한 횟수만큼 인덱스 출력

''' 출력
0 0 1 1 2 2 3 4 5 5 6 7 8 9 9
'''
```

## 계수 정렬 동작 예시

1. 가장 작은 데이터부터 가장 큰 데이터까지의 범위가 모두 담길 수 있도록 리스트를 생성한다.
2.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며 데이터의 값과 동일한 인덱스의 데이터를 1씩 증가시킨다.
3. 결과적으로 최종 리스트에는 각 데이터가 몇 번씩 등장했는지 그 횟수가 기록된다.
4. 결과를 확인할 때는 리스트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하나씩 그 값만큼 반복하여 인덱스를 출력한다.

수행시간을 구해보자.

2번 과정에서 N번, 4번 과정에서 등장 횟수가 담긴 리스트의 모든 인덱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$K + 1$ 번, N개 출력하는 과정에서 N번

총  $2N + K$ 번 반복문이 돌아가므로 시간복잡도는 계수를 생략하여  $O(N + K + 1)$ 이 된다.

모든 데이터가 양수일 때는  $O(N + K)$ 이다. 2번 과정에서 동일한 인덱스 대신 데이터의 값보다 1 작은 인덱스의 데이터를 증가시키면 된다.

## 계수 정렬의 복잡도 분석

계수 정렬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는 모두  $O(N + K)$ 이다.

계수 정렬은 데이터가 최댓값과 최솟값 각각 하나씩만 존재하는 경우 등 때에 따라서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.

계수 정렬은 동일한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여러 개 등장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성적의 경우 100점을 맞은 학생이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에 계수 정렬이 효과적이다.

## 정렬 알고리즘 비교하기

## 정렬 알고리즘 비교하기

- 앞서 다룬 네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표준 정렬 라이브러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 $O(N\log N)$ 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정렬 알고리즘	평균 시간 복잡도	공간 복잡도	특징
선택 정렬	$O(N^2)$	$O(N)$	아이디어가 매우 간단합니다.
삽입 정렬	$O(N^2)$	$O(N)$	데이터가 거의 정렬되어 있을 때는 가장 빠릅니다.
퀵 정렬	$O(N\log N)$	$O(N)$	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적합하며, 충분히 빠릅니다.
계수 정렬	$O(N + K)$	$O(N + K)$	데이터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매우 빠르게 동작합니다.

## 선택 정렬과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 수행 시간 비교

파이썬의 경우 병합 정렬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 $O(N\log N)$ 의 시간복잡도를 보장한다.

```
from random import randint
import time

# 배열에 10,000개의 정수를 삽입
array = []
for _ in range(10000):
    # 1부터 100 사이의 랜덤한 정수
    array.append(randint(1, 100))

# 선택 정렬 프로그램 성능 측정
start_time = time.time()

# 선택 정렬 프로그램 소스코드
for i in range(len(array)):
    min_index = i #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
    for j in range(i + 1, len(array)):
        if array[min_index] > array[j]:
            min_index = j
    array[i], array[min_index] = array[min_index], array[i]

# 측정 종료
end_time = time.time()
# 수행 시간 출력
print("선택 정렬 성능 측정:", end_time - start_time)
```

```
# 배열을 다시 무작위 데이터로 초기화
array = []
for _ in range(10000):
    # 1부터 100 사이의 랜덤한 정수
    array.append(randint(1, 100))

#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 성능 측정
start_time = time.time()

#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 사용
array.sort()

# 측정 종료
end_time = time.time()
# 수행 시간 출력
print("기본 정렬 라이브러리 성능 측정:", end_time - start_time)
```

### 실행 결과

선택 정렬 성능 측정: 35.841460943222046

기본 정렬 라이브러리 성능 측정: 0.0013387203216552734

## 정렬 알고리즘 예시: 두 배열의 원소 교체

### 〈문제〉 두 배열의 원소 교체: 문제 설명

- 동빈이는 두 개의 배열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배열은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, 배열의 원소는 모두 자연수입니다.
- 동빈이는 최대 K 번의 바꿔치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, 바꿔치기 연산이란 배열 A에 있는 원소 하나와 배열 B에 있는 원소 하나를 골라서 두 원소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.
- 동빈이의 최종 목표는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, 여러분은 동빈이를 도와야 합니다.
- N, K, 그리고 배열 A와 B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, 최대 K 번의 바꿔치기 연산을 수행하여 만들 수 있는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댓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.

- 예를 들어  $N = 5$ ,  $K = 3$ 이고, 배열 A와 B가 다음과 같다고 해봅시다.
  - 배열 A = [1, 2, 5, 4, 3]
  - 배열 B = [5, 5, 6, 6, 5]
- 이 경우, 다음과 같이 세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  - 연산 1) 배열 A의 원소 '1'과 배열 B의 원소 '6'을 바꾸기
  - 연산 2) 배열 A의 원소 '2'와 배열 B의 원소 '6'을 바꾸기
  - 연산 3) 배열 A의 원소 '3'과 배열 B의 원소 '5'를 바꾸기
- 세 번의 연산 이후 배열 A와 배열 B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입니다.
  - 배열 A = [6, 6, 5, 4, 5]
  - 배열 B = [3, 5, 1, 2, 5]
- 이때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6이 되며, 이보다 더 합을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.

난이도 ●○○ | 풀이 시간 15분 | 시간제한 2초 | 메모리 제한 128MB

#### 입력 조건

- 첫 번째 줄에  $N, K$ 가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입력됩니다. ( $1 \leq N \leq 100,000$ ,  $0 \leq K \leq N$ )
- 두 번째 줄에 배열 A의 원소들이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입력됩니다. 모든 원소는 10,000,00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.
- 세 번째 줄에 배열 B의 원소들이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입력됩니다. 모든 원소는 10,000,00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.

#### 출력 조건

- 최대 K번의 바꿔치기 연산을 수행하여 만들 수 있는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댓값을 출력합니다.

#### 입력 예시

```
5 3
1 2 5 4 3
5 5 6 6 5
```

#### 출력 예시

```
26
```

핵심 아이디어는 매번 배열 A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골라서, 배열 B에서 가장 큰 원소와 교체하는 것이다.

가장 먼저 배열 A와 B가 주어지면 A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고,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한다.

이후에 두 배열의 원소를 첫 번째 인덱스부터 차례로 확인하면서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작을 때에만 교체를 수행한다.

이 문제에서는 두 배열의 원소가 최대 100,000개까지 입력될 수 있으므로, 최악의 경우  $O(N \log N)$ 을 보장하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한다.

```
n, k = map(int, input().split()) # N과 K를 입력 받기
a = list(map(int, input().split())) # 배열 A의 모든 원소를 입력 받기
b = list(map(int, input().split())) # 배열 B의 모든 원소를 입력 받기

a.sort() # 배열 A는 오름차순 정렬 수행
b.sort(reverse = True) # 배열 B는 내림차순 정렬 진행

# 첫 번째 인덱스부터 확인하며, 두 배열의 원소를 최대 K번 비교
for i in range(k):
    #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작은 경우
    if a[i] < b[i]:
        # 두 원소를 교체
        a[i], b[i] = b[i], a[i]
    else: #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크거나 같을 때, 반복문을 탈출
        break

print(sum(a)) #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출력
```



